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보 도 자 료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6월 18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데이터산업과 자원순환과	담 당 자	• 블록체인기술팀장 • 담 당 자 • 자원재활용팀장 • 담 당 자	여명이 ☎440-3271 윤필수 ☎440-3277 박승일 ☎440-3571 장진희 ☎440-357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블록체인 기술로 시민 주도형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 블록체인 공공분야 확산 사업 공모 선정 10억 원 확보 -
- 에코허브플랫폼 구축, 자원순환 활동 실천하면 마일리지 적립 등 제공 -

인천광역시는 블록체인 기반 ‘자원순환을 위한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2024년 지역 블록체인 공공분야 확산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인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천시 데이터산업과, 자원순환과, 그리고 5개 군·구가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에코허브플랫폼)를 기획하게 됐다.

에코허브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신원증명(DID)를 발급해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분산 저장하고, 시민들의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 주도

형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플랫폼은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가게와 무인회수기에 회수된 자원순환 활동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해 개인의 자원순환 활동 이력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원순환가게에는 사물인터넷(IoT) 장치를 도입해 그동안 수기로 무게를 측정했던 업무 과정을 디지털화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실증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여러 부서·관계기관과의 단계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에코허브플랫폼을 확산해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전 국민의 자원순환 활동 일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에코허브플랫폼이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체감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되는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민간산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자원순환가게, 무인회수기 사진
<관련사진>



자원순환가게



무인회수기